

로잔:복음주의 선명성 천명해야...WCC 종교다원·혼합주의 경계

한국기독교한림원, 5월 31일 은혜와진리교회에서 개최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방향’ 주제로 제5차 학술대회



한림원 이사장
조용묵 목사



한림원 원장
정상문 박사

한국기독교한림원(韓國基督教翰林院, 이사장 조용묵 목사·원장 정상문 성결대 명예총장)은 지난 5월 31일(금) 오후 3시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에서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방향’이란 주제로 제5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땅 끝까지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한국기독교한림원이 여기에 기여하여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학술대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박응규 아신대 교수의 사회로 시작되어 김선배 전 한국침신대 총장의 기도, 서정숙 강릉영동대 명예교수의 성경봉독, 김지섭 추계예술대 교수의 특송,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원대학교 총장 오덕교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오덕교 목사는 요 21:15-28 말씀을 본문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제목의 설교, 특별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와 동성애 확산 저지를 위해’, ‘한국기독교한림원과 은혜와진리교회를 위해’ 이광희 평택대 명예교수, 하주헌 경희대 의대교수, 이억주 전 갈빈대 교수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이사장 조용묵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갖고 곧바로 학술대회로 이어졌다.

좌장 이상규 백석대 석좌교수의 인도로 시작된 학술대회는 안병준 평택대 명예교수의 기도, 정상문 원장(성결대 명예총장)의 개

회사 및 신입회원 소개에 이어 이사장 조용묵 목사는 신입회원 김선배 전 침신대 총장, 하주헌 경희대 의대 교수에게 위촉장 수여 및 축하패를 전달했다.

원장 정상문 박사는 개회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는 반성경적인 시대정신이 난무하고 있으며 타종교 구원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양심 구원까지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 대속의 필요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반복음적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분열된 국내 교계 연합단체들은 무엇을 위한 연합운동인가. 목표와 방향이 진정 그리스도와 복음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 돌아봐야 하며 이런 점에서 오늘 학술대회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곧바로 한국신학대학총장협의회 최대해 회장(대신대 총장)의 축사 후 발표로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승구 합신대 석좌교수는 ‘로잔운동과 성경적 생명 윤리 질서:로잔운동에 생명윤리 질서 옹호를 요청하면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승구 박사는 “나는 이 글에서 성경적 삶론 개념에 충실하게 이 문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이 진정 복음주의적인 작업을 하는 것이며, 그것이 로잔 언약의 본래적 의도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로잔언약이나 진정한 기독교적 사회 책임에 충실하려면 정치적 우파와 정치적 좌파 등과의 철저한 절연이 필요하다. 그런 정치적 운동에 말려 들어가면 결국 기독교의 목소리는 사라지게 된다.”고 전하고 “로잔언약을 이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나타났던 자유주의 방식으로 로잔언약을 이해하는 것은 복음주의 운동으로서의 로잔언약을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이전에 사회복음주의와 같은 방식으로 로잔언약을 이해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성경관과 하나님 나라 이해에 있어서 라우렌스부쉬(Walter Rauschenbusch) 등

의 사회복음주의 운동과 20세기와 21세기에 이어지는 로잔운동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잘 인식해야 한다. 구원에 관한 이해도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이 말하는 바를 이해하나 한국 교회가 바라는 대로는 표현할 수 없다는 소리가 들리는 데, 만일 그렇게 한다면 로잔 운동에 대한 실망이 크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부디 바라기는 아주 명확한 성경적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생명 질서를 천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임성택 전 강서대 총장(미래세대청년연합신교회 대표)은 ‘한국교회연합운동의 현실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성택 전 강서대 총장은 “교회연합운동은 철저하게 원전인 신앙성경에 기초한 복음(성경) 갱신을 통하여 교회의 긍정적인 미래 지향적 개혁을 추구하는 교회일치운동이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갱신과 개혁의 동력은 그 무엇보다도 순수한 신앙적 회개를 동반한 열정이다. 회개는 주님과 같이 가겠다는 고백이며, 어떤 일든 주님과 같이 가지 않는 것에서 돌아서서 철저하게 주님과 함께하겠다는 결단이다. 현재 한국교회의 가장 취약한 점은 교회의 심장을 뛰게 하는 원동력인 회개라는 엔진이 멈추면서 그 열정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한때 ‘Again1907년’을 부르짖으며 회개운동을 전개하였지만 그것은 단순한 포퍼민스였다. 언제부턴가 교회의 회개가 대중을 향한 이벤트가 되면서, 교회의 갱신과 개혁의 몸부림도 한강 이벤트가 되고 말았다. 이런 모양으로는 교회의 미래는 없다. 목사가 직업이 되고, 교회 안에 노조가 생기고, 교권 지향적 교회연합단체의 이합집산은 이미 열정과 회개의 영성을 상실한 한국교회의 당연한 불행인지 모른다. 이런 한국 교회는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미래성장동력을 상실해가는 무기력증에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지금 그대로 가겠다고 고집한다. 이는 전혀 내일을 고려하지 않는 고집이며, 미래 세대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기적인 태도이다. 지도자들은 신앙적 양심에 기초하여 회개하는 자세로 교회의 복고와 개혁적 사명감으로 비교와 교회연합운동으로 나와야 한다. 그래야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돌아선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교도 운동에서 그 정신과 자세와 열정을 배우고, 기독교 영성의 회복을 통해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삶,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높은 지성, 고결한 성품, 양심의 바른 판단을 구현해야 한다. 그 길로 가는 길이 주와 함께 가겠다는 치열한 회개에 있음을 고백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교회로 돌아갈 비교와 연합운동의 힘찬 전진을 제창한다.”고 했다.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황덕형 서울신대 총장은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신학:WCC 내의 종교다원성과 혼합주의의 위험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황덕형 총장은 “WCC운동의 한 단면인 다원주의의 원인과 그 배경을 보면 이러한 다원주의의 생성은 단순히 역사적 탄생 배경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WCC가 실천하려는 목적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WCC의 내적 성장은 바로 이 다양주의로의 발전과 전개에 의거한 것이며 또한 그만큼 혼합주의적 성격을 내포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보았다. 사실 혼합주의란 다원주의와 다원성 모두에게 열려있는 말이다. 참된 모험은 내가 다른 것이 될 때 일어난다. 예술에서 일어나는 창조는 이러한 융합

의 사건이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한계에서 우리와 유사한 존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복음을 증거해야 할 우리의 구체적인 입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중의 하나가 되신 것은 기적 중의 기적으로 일반적인 인간 한계 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기적을 모방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이 기적만이 그 기적을 닮으려는 다른 모방 행위들에게 그것이 기적으로 변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복음임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즉 복음은 원형적 사건으로서 절대로 우리 사이에서 일어날 법한 그 리고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다른 모방의 모방이 아니다. 이 원형적 현실은 데리다의 백색 신화에 등장하는 동전과는 다른 것이다. 지속적으로 사용되어도 무한한 차이 가운데 언제나 동일하게 남는 사건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건이다. 우리는 그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명시적으로 증거 될 때 일어나는 일이다. 복음은 혼합주의적으로 해석을 품은 다른 해석이 아니다.”라고 경계를 분명히 했다.

종합논평에 나선 이동주 전 아신대 교수(바이어하우스학회 회장)는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 것과 귀한 논문을 발표해 주신 세 분께 감사사를 드린다고 했다.

곧바로 질의 응답시간을 갖고 목창균 전 서울신대 총장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국기독교한림원(韓國基督教翰林院, KAC)은 복음주의 신앙과 신학에 기초하여 한국교회의 건실한 발전을 도모하고, 기독교적 가치 실현을 통해 한국 교회와 사회를 계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목적과 취지로 창립되었다.

2022년 5월 20일(금)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창립감사예배를 드리고 ‘21세기 상황과 한국교회, 도전과 극복’을 주제로 제1차 학술대회와 ‘WCC 제11차 총회,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2차 학술대회를, 제3차 ‘젠더이데올로기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처’, 제4차 ‘한국기독교와 한미동맹 70주년’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이어 오고 있다.

한국기독교한림원의 정회원은 다음과 같다.

◆ 한국기독교한림원 정회원 ◆

김원평 박사(한동대 석좌교수), 김선배 박사(전 침신대 총장), 목창균 박사(전 서울신대 총장), 박명수 박사(서울신대 명예교수), 박응규 박사(아신대 명예교수), 서정숙 박사(강릉영동대 명예교수), 안병준 박사(성서대 초빙교수), 임성택 박사(전 강서대 총장), 이광희 박사(평택대 명예교수), 이동주 박사(전 아신대 교수), 이상규 박사(백석대 석좌교수), 이승구 박사(합신대 석좌교수) 이억주 박사(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이은선 박사(안양대 명예교수), 오덕교 박사(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 총장), 정상문 박사(성결대 명예총장), 최대해 박사(대신대 총장), 황덕형 박사(서울신대 총장, 한국기독교학회 회장), 하주헌 박사(경희대 의대교수, 한국장로과학회 회장)



73차 총회장 김영준 목사 취임

교회부흥·바른복음전파 총력



김영준 목사
예하성 총회장
갈릴리코스망교회

제73차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김영준 목사(갈릴리코스망교회) 취임 감사예배가 지난 5월 30일(목) 은혜와

진리교회 아가페성전에서 드려져 한국교회에 깊숙히 침투해온 종교다원주의를 비롯 그릇된 이단사이비를 몰아내고 바른 복음전파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교단총회 사무국장 윤기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교단 부총회장 이인호 목사의 기도, 교단 총무 오세준 목사의 성경봉독, 특별찬양으로 은혜와진리교회 송혜원 지휘자의 특송, 교단 정책위원장 조용묵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행 22:6-10 말씀을 본문으로 ‘주의 종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질문과 답’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주의 종들은 주님의 뜻을 알아내는데 힘써야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한 뒤 “이번에 취임하시는 총회장 김영준 목사님은 그동안 주의 종의 모습으로 생활해 왔음을 보아왔다. 앞으로도 주의 종들 중에 종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하고 취임을 축하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설교에 이어 교단 직전총회장 김병목 목사는 축사를 통해 귀하고 막중한 사명을 부여 받은 총회장님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했으며 전임총회장 전동운 목사는 격려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고 크게 쓰임 받는 사역자가 될 것을 당부하고 기도와 마음으로 후원할 것을 다짐하고 격려했다.

이어 정책위원장 조용묵 목사의 축하뜻과 발증장 갈릴리코스망교회 권사회와 성도들의 꽃다발증정, 교단 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총회장 김영준 목사는 총회장의 증책을 섬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감당할 것을 다짐하고 바른 복음전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힘주어 말했다.

계속해서 갈릴리코스망교회 권사회 회원들의 특별찬양이 있었으며 사회자의 광고, 조용묵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으며 참석한 회원들은 한국교회에 바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와 성원을 보낼 것을 다짐했다.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기도’

세기총,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에서 통일기도회 개최

(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기현 장로,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이하 세기총)는 지난 5월 18일(토) 오전 10시(현지 시각)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에 위치한 가나안교회(Iglesia Canaan)에서 ‘제44차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44차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산토도밍고 기도회는 세기총 평화통일기도위원회 주관, 세기총 도미니카공화국 지회 후원으로 진행됐다.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사회, 주선사 목사(한도고등학교 교장)의 통역으로 드린 이 날 기도회는 먼저 한반도 자유·평화통일기도회 영상이 상영됐으며 최광규 선교사(준비위원장·세기총 도미니카공화국 지회장)가 환영사를 전했다.

최광규 선교사는 “통일을 위해, 이 먼 땅인 도미니카공화국에 함께 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대회를 전한 대표회장 전기현 장로는 “함께 자리에 주신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 그



리고 성도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홍영식 목사(도미니카한인교회 담임)가 기도했으며 빅토르 세르다(Victor Cerda) 씨의 특별찬양에 이어 장식진 목사(세기총 제2대 대표회장)가 “너희는 양식을 준비하라, 강을 건널 것이다” (수 1:10-18)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설교 후 박선신 전도사(살롱장로교회)의 헌금기도, 김선훈 선교사(세기총 폴토피아

지회장)의 인도로 특별기도 시간이 있었다. 특별기도에는 ‘한반도 자유·평화통일과 북한동포들을 위해’ 정득수 선교사(세기총 멕시코 지회장)가, ‘도미니카공화국의 복음화, 총선과 대선을 위해’ 흐레이나르도 아케노 감독(도미니카 기독교 대표회장)이, ‘러·우 이·팔 전쟁 종식과 한반도·세계 평화를 위해’ 방도호 선교사(세기총 페루 지회장)가, ‘3만 한인선교사와 750만 재외동포들을 위해’ 한도수 선교사(세기총 브라질 지회장)가 각각 기도했다.

“반기독교 사상 세력에 맞서 한국교회 수호”

서기총, 2차 실무회의를 갖고 전략 논의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심하보 목사, 서기총)는 지난 5월 27일(월) 서울 은평제일교회에서 제20회-2차 실무회의를 갖고, 반기독교 사상과 세력에 적극 대응하며 한국교회를 수호하는 일에 힘쓰기로 했다.

이날 1부 예배는 노곤재 사무총장의 사회로, 장동우 목사(실무회장)가 기도했고, 심하보 대표회장이 말씀을 전했다.

심 목사는 “요즘 사람은 옳고 그름이 없고 좋고 싫음만 있다”면서 “우리는 좋고 싫음을 떠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당당히 외치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기총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불의를 보면 나서야 한다”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서는 일과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해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을 살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가 되자”고 전했다.

2부 회의에서는 심하보 대표회장이 의장



을 맡아 인사말을 전하고 CTS기독교TV와 서울시가 함께 하는 ‘2024년 서울형키즈카페’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6월 1일 기록한 밤과제’에 대해 주요셉 공동회장이 설명했고, 반기독교세력에 대응해 한국교회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차별금지법의 향후 움직임에 대해 경계를 갖자고 요청했다.

그밖에 ‘청년연합바로서다’의 김정희 상임대표가 지난 선거에서의 일과 앞으로 교

회가 어떻게 선거를 대처해야 하는지 전략적 협력을 당부했다.

끝으로 회의에서는 안희환 실무회장이 발언했다. 안 회장은 “기독교를 진두지휘해서 끌고 갈수 있는 실제적인 연합단체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한기총, 한교총이 할 수 없는 일을 서기총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서기총이 구체적으로 조직화를 해서 각 분과별로 전문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원로목사총연, 자랑스러운 목회자 시상식

림인식·임광재·김만수 목사 각각 분야별 수상

(사)한국원로목사총연합회(이사장 엄신형 목사)는 지난 5월 8일(수)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소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교회 자랑스러운 목회자 시상식



을 가졌다.

이번 시상식에서 자녀를 잘 양육하신 원로목사로 림인식 목사를, 선교를 성공적으로 감당하신 원로목사로 임광재 목사를, 원로목

사와 아름다운 섬김으로 귀감이 된 김만수 목사를 2024년도 수상자로 선정해 수상하고 격려했다. 자녀를 잘 양육하신 원로목사 상을 받은 림인식 목사는 금년 연세가 99세로 평소 하나님의 부름 받은 목회자로 본이 되는 생활로 자녀들은 물론 4대에 이르기까지 목회자를 양육해온 공이 인정되어 받았다.

선교를 성공적으로 감당하신 원로목사상을 받은 임광재 목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8명의 자녀와 함께 선교사역을 하면서 복음전파와 한국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받았다.

‘사랑 나눔 희망 음악콘서트’

제1회 장기기증본부 강원영동지부 음악 콘서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택 /이하 본부) 강원영동지부는 지난 5월 25일(토) 오후 5시, 강릉시 교1동에 위치한 강릉 문화원 공연장에서 진행된 ‘사랑 나눔 희망 음악콘서트’를 개최했다.

본부 강원영동지부의 주관으로 올해 처음 개최된 ‘사랑 나눔 희망 음악콘서트’는 3부에 걸쳐 가요 및 자작곡 등 장기기증의 숭고한 가치가 담긴 10여 개의 연주곡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대금 연주팀 ‘다올데’의 찬조 공연으로 막이 오른 ‘사랑 나눔 희망 음악콘서트’는 최익현 오페라나 연주자의 ‘물놀이’와 박재우 통기타 연주자의 ‘꽃은 다시 피고’, ‘추억속으로’ 등의 자작곡을 오페라나와 기타의 합동 연주로 펼쳐며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2부와 3부 공연은 바순과 플루트 선율로

무대를 재웠다.

2부에서는 김지연 바순 연주자의 ‘Hymn-Bill Douglas’, ‘사랑의 인사-Elgar’ 등 공연이 이어졌으며, 마지막 3부에서는 ‘천개의 바람이 되어-임형주’, ‘꽃-장윤정’ 등의 곡을 장희정 플루티스트가 연주하며 공연장에 모인 100여 명의 관객들의 환호 속

에서 콘서트의 막을 내렸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축사를 통해 “장기기증은 많은 생명을 구하고, 누군가를 살게 하는 빛이다.”라며 “이번 콘서트가 생명나눔에 대한 인식의 전환점이 되어, 많은 분이 장기기증이라는 숭고한 약속에 함께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예장호현·호현A, 합동수양회 개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귀한 시간 가져

대한예수교장로회(호현)총회(총회장 김중주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호현A)총회(총회장 김성수 목사) 합동 수양회가 지난 5월 23일(목)부터 24일(금)까지 경북 문경시 소재 STX리조트에서 열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화합을 이루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합동수양회 1부 개회예배는 제1 부총회장 박정순 목사 사회로 부총회장 여정택 목사의 기도, 회의록서기 김연조 목사의 성경 봉독, 바이올리니스트 김민서의 특별연주, 총회장 김성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수 목사는 시 133:1-3 말씀을 본문으로 한 ‘형제가 연합함’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식구이다. 형제라도 연합하지 않으면 남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우

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형제가 되어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으로 맑은바 직분을 감당해나가기”라고 강조했다.

예배는 계속해 총회장 김중주 목사의 개회사, 회계 정창길 목사의 헌금기도, 총무 이한우 목사의 광고 후 증경총회장 안봉용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번 합동수련회는 이어 23일 오후 4시 30분부터는 세미나로 고성선·이광수 목사의 특송, 서기 유동열 목사의 기도예 이어 증경총회장 이영근·강희훈 목사가 강의를 인도했다. 이어 오후 7시 30분에 열린 찬양제미나에는 심상종 교수(하늘소리 색소폰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의 찬양제미나에 이어 윤동훈 목사의 사회로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갖고 아름다운 화합의 하모니를 이루는 시간을 가졌다.

국제마약경찰대 서울캠퍼스 이사 추대

박경호·신동진·임홍식·김향란 이사 등



국제마약경찰대학교 서울캠퍼스(총장 양창부 목사)는 지난 5월 27일(월)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대학로 소재 동 대학교 강당에서 이사 및 감사 추대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행정처장 윤승권 목사 사회

로 학생처장 강말희 목사의 기도, 김옥희 전도사의 특송, 총장 양창부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양 총장은 마 25:1-13 말씀을 본문으로 한 ‘사명 감당하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 한 번 쓰고 버리는 1회용이 되지 말고 슬기로운 다섯처럼 기름을 준비해 주님 주신 사명을 땅끝까지 감당하는, 쓰임받는 자들이 되자”고 강조했다.

예배에 이어진 수여식은 이사장 안봉용 목사를 대리해 총장 양창부 목사가 박경호·신동진·임홍식·이향란 이사에게 이사 추대패를, 감사 김미영에게 각각 감사추대패를 전달했다. 계속된 이사 및 감사 추대예배는 이사 신동진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서울캠퍼스 총재 양창부 목사는 (사)통일지향중앙협의회(회장 이향란)로부터 총재로 추대 받았다.

한편, 국제마약경찰대학교 서울캠퍼스는 I-DPL(국제마약감시대원) 양성과 전문기기를 양성해 마약퇴치와 근절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성결대, 2024 ‘JOB A DREAM’ 직무박람회

재학생 및 졸업생, 지역청년 대상 직무 정보 제공

성결대학교(총장 김상식)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5월 27일(월) 재학생 및 졸업생, 지역청년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직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2024 ‘JOB A DREAM’ 직무박람회를 개최했다.

성결대 중생관과 영암관 야외 공간에서 진행된 이번 직무박람회에는 기업별 담당자와 1:1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직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직무 ZONE’, 진로 탐색 및 AI 트렌드에 대해 알 수 있는 ‘진로 ZONE’, 진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이벤트 ZONE’ 등 총 26개의 부스가 운영되며 관심을 모았다. 특히 ‘직무ZONE’에서는 카카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윌러스, 아시아나 등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해 각 분야 직무에 대한 상담을 학생들과 1:1로 진행했고, 총 19개

의 기업의 직무 현장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해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제공했다.

또, ‘진로 ZONE’에는 진로 탐색을 위한 특강이 마련됐다. ‘숨은 나를 찾고 알아가는 진로탐색’ 특강이 성결대 기년관에서 진행됐고,



‘디지털리터러시와 AI 트렌드’ 특강이 열리며 관심이 높았다. 특강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하고 최신 기술 트렌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이벤트Zone’에서는 퍼스널컬러진단, 1분 캐리커처, 지문적성검사 등의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됐으며 경기경영자총협회와 함께하는 스마트폰 사진인화, 푸드트럭 등이 관심과 재미를 더했다. 성결대 진생아 대학일자리개발처장은 “이번 직무박람회는 청년들이 진로와 직무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며 “여러 기업별 직무에 대한 실질적인 다양한 정보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자신만의 진로와 취업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망교도소, 여주도서관과 업무협약

수용자 교육교화 위한 독서 활동 지원

소망교도소가 여주시 평생교육과(과장 장지순) 여주도서관과 ‘수용자 독서활동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도

서 기증과 도서 단체대출 시행, 수용자 교육교화를 위한 독서 프로그램 지원 및 작가 특강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지난 5월 22일(수) 소망교도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영식 소망교도소 소장, 장지순 여주시 평생교육과장 등 양 기관 관계자 7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장지순 여주시 평생교육과장은 “업무협약으로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도서관의 독서지원 서비스 대상이 확대됐다”며 “독서 활동을 통해 수용자들의 교화 및 출소 후 건전한 사회 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식 소망교도소장은 “도서기증, 작가 초청 특강, 독서 프로그램 등 여주도서관의 다양한 소망교도소 독서 활동 지원이 독서 문화 활성화로 이어져 수용자들의 교육 교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단 제73차 총회 제1회 임원회

하나님 뜻을 좇아 살면 책임져 주신다

복의 무력도발 강력한 대응 한미동맹 강화... 차별금지법 저지, 이단 침투 막아야



김영준 목사
예하성 총회장
갈릴리교소망교회

교단 총회(총회장 김영준 목사) 제73차 총회 제1회 임원회가 지난 5월 30일(목) 오전 11시 은혜와진리교회(당회장 조용목 목사) 회의실에서 열려 각종 보고와 회무를 처리하고 주요내용 등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총회장 이인호 목사의 기도,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마 6:33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우리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마리아 성 앞의 네 명의 문둥병 환자처럼, 다윗처럼, 기드온처럼 하나

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다”고 전하고 임원들을 축복했다.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회의에 들어가 서기 장동근 목사의 회원점명, 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개회선언, 총무 오세준 목사의 총무보고, 재무 김기진 목사의 재무보고, 회계 백영자 목사의 회계보고 사항으로 이어졌다.

총무 오세준 목사는 73차 정기총회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수 1:7)라는 주제로 은혜 가운데 치러지고 임원진이 새로이 개편되었음을 보고했다.

제12회 전국사모연합회 정기총회도 같은 날 개최예배 후 개최되었음을 보고했다.

결의 및 안건토의사항에서는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가입 청원, 교회전출입 청원, 교역자전출입 청원, 교회명칭변경 보고, 교회주소 변경 보고, 전도사임명 청원 건과 여교역자 국장 임기만료로 조영란 목사가 여교역자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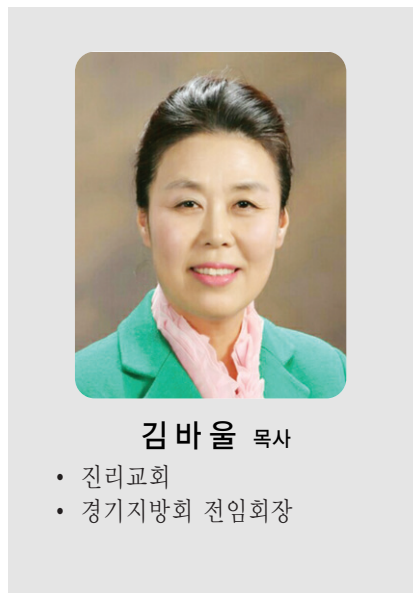
장에 선임되었음을 보고했다.

이어 경기서부지방회(가칭) 설립요청 건과 지방회 설립 건을 논의했으며 5월 30일(목) 오후 2시 총회장 김영준 목사 취임 감사예배, 탁구선교회 6월 10일 모임, 6월 17일 제73차 총회 제1회 고시위원회 모임 등을 보고했다.

임원들은 감염병 종료 선언 후에도 예기치 못한 전염병 예방을 위해 위생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총회원들에게 당부하기로 했으며 결혼 적령기 결혼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세계 최고의 저 출산 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또한 말씀왜곡으로 영혼을 수렁으로 빠뜨리는 사이비집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북한의 무력도발 중단과 핵무장 야욕을 봉쇄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의 폭을 확대하여 국가안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생명의 말씀



김바울 목사

- 진리교회
- 경기지방회 전임회장

본문말씀의 백부장의 이야기는 구원받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이 이방인이 백부장의 믿음을 극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마 8:10)

이어서 예수님은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이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인 것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이더라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만, 이

스라엘 자손일지라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없으면 지옥에 갈 거라는 것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마 8:11-12)

그리고 나서 백부장에게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과 그로인한 결과는 더 놀랍습니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마 8:13)

우리는 본문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받은 믿음이 실제가 무엇이며 또한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스라엘 중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는 예수님의 극찬을 들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백부장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한 백부장이 중풍병 걸린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

아와서 간구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고쳐주리라”고 했을 때 백부장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고 그의 믿음을 극찬했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나 부하들을 비유로 한 말을 살펴보면 믿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순종에 대해 말했지만, 믿음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나 부하에게 “가라”하면 가고, “오라”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하면 하는 것은 순종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나 자기 부하가 자기 말에 절대 복종하듯이 자신도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겠으니 수고스럽게 내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말씀(명령)만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백부장이 한 말을 믿음으로 보았을까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백부장의 종의 중풍병이 나을 것을 선포(선언)하시고, 백부장은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마 8:10에서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

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에서 “이만한 믿음”(토사우텐 피스틴)은 백부장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면 되는데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직 백부장만이 그런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백부장은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백부장의 그런 순종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고, 산이 바다에 빠지라고 명함시면 그대로 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백부장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산을 옮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샬롬^^

이스라엘 중에도 볼 수 없는 큰 믿음

(마 8:1~13)

논평

한국교회연론회

가정의 가치는 재화와 물질로도 계산이 안 된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그래서인지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이 있다. 가정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남음이 없다.

가정은 우리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이며, 국가를 형성하는 공간이 된다. 사람들은 가정을 통하여 사랑을 알고, 혈연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가족끼리 서로 돕고 이타심을 배우는 곳이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 전체가 병들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가정은 자녀를 낳고 길러 사회와 국가에 소중한 인력자원을 배출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가정의 소중함은 누구라도 자각해야 한다.

성경에서도 가장 먼저 가정이 이루어졌다.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 의한 가정이 이루어졌고, 그들을 통하여 인류가 생겨나고, 민족과 국가와 세계가 이루어진 것이다.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다.

이런 가정을 허물려는 시도와 세력들이

판을 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성경의 말씀대로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깨트리고 허무는 동성애를 위한 온갖 제도와 법률이 만들어지고 있다.

동성애의 존재나 그들의 실재를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들을 위해 건강한 가정과 국민들을 역차별하면서까지 보호하거나,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행위는 매우 악한 일이다.

그런데 최근에 어느 재벌의 이혼 소송이 있었는데, 언론에서는 ‘1조 3,800억짜리 이혼’이라며 대서특필하고 있다. 그 내용에 보면 황소심 선고에서 담당 판사가 ‘부정행위에 대해 전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재벌총수를 질타했다고 한다. 당연한 일이다.

혼인의 순결과 가정의 소중함, 일부일처제의 질서를 깨는 것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

회 공간이 되는 가정들이 지켜질 수 있다.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본능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 가정의 가치를 지키기 때문이다.

거꾸나 이번엔 이혼 당사자가 된 재벌 기업인은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느낄 때에도 부끄러움이나 반성이 없었다면, 사회지도자로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모두 지도자는 아니다. 적어도 국민들이 볼 때에 모든 욕심을 자제하고 모범이 될 때, 사람들을 그를 인정하고 존경할만한 지도자로 여기는 것이다.

한 지도자의 도덕성이 결국은 그 기업의 운영과 경영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참된 가치는 재화나 물질로도 계산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있음을 국민들도 깨달았으면 좋겠다.

동정

한국신학아카데미 학술세미나



한국신학아카데미(원장 김균진 박사) 주최 2024년 봄학기 학술 세미나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신약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지난 5월 24일(금) 서울 성북구 아카데미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오성종 박사(전 칼빈대 교수)는 이날 주제에 대해 ‘루터와 칼빈의 해석 및 (바울에 관한 새 관점)의 비교를 통한 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대한기독병원협회 신임 협회장에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이대희 이사장이 향후 2년간 대한기독병원협회를 이끌 신임 협회장에 선출됐다. 대한기독병원협회는 지난 5월 25일(토) 오전 프레이저 플레이스 남대문 서울에서 개최된 ‘2024년 제48차 정기총회’에서 제27대 대한기독병원협회장으로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이대희 이사장을 선출하고 취임식을 가졌다.

예수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개소



전주 예수병원(병원장 신창식)은 지난 5월 20일(월) 보건복지부 지정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호남 최초로 개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소아응급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한 결과, 전주 예수병원과 충북대학교 병원 두 곳을 최종 선정했다. 예수병원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시범 운영해 왔다.

박은영 아나운서, 꿈지원단 위촉



굿네이버스 서울북부사업본부(본부장 서은경)는 지난 5월 17일(금) 박은영 아나운서를 지역후원회 및 꿈지원단에 위촉했다. 박은영 아나운서는 반티투스, 조윤주 쇼호스트와 진행한 바자회 물품 판매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전달했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굿네이버스 서울북부사업본부 지역후원회 및 ‘꿈심꿈나 꿈지원단’으로 함께하기로 했다.

임원진에 바른복음 전파 당부

조용목 목사... 부흥사회 신임원진 격려

예하성 부흥사회장 김건수 목사(예주한마음교회)를 비롯 전임 회장 신재영 목사(전임 총회장)와 신임 임원진들은 신임 인사차 은혜와진리교회를 방문하고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에게 신임 인사를 드렸다.

이 자리에서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는 신임 임원들을 축하 격려하고 마지막 때 바른 복음을 전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귀한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부흥사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4년 부흥사회

2024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 문의 회 장 김견수 목사 HP : 010-3698-5764
상임총무 조은혜 목사 HP : 010-5649-5121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4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설립취지
본 연합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인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 1. 지원자격

학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인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 2. 제출서류(각 1통)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 3. 전형안내
①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② 서류심사 및 면접: 수시
③ 전형료: 20,000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 4. 접수방법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 5. 특전 및 기타사항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e-mail: ucts5181@naver.com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4학년도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자질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자질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심열.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02)2678-5181 FAX: 031)944-5181
■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www.ucts.org
e-mail: ucts5181@naver.com
-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단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 3. 전형일정 ① 원서 교 부: 수시 ② 원서교부처: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③ 원서 접 수: 수시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개별통보
- 4. 전형료 ① 전형료: 30,000원
②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 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사모연합회 2024년 신임원 명단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사모연합회 회장 이윤순 · 총무 김세희 (010-2610-3816)

한국기독교한림원 제5차 학술대회/ 주제－한국교회 연합운동의 방향

개회사

정상운 원장(기독교한림원 원장, 성결대 명예총장)

여는 말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반성경적인 시대정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 간의 차이는 진리와 거짓의 문제가 아닌 동일한 진리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는 주장이 팽배하게 일어나면서 기독교만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구원의 종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기독교 일각(一角)에서도 이슬람이나 불교와 같은 타종교에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음을 말하며, 타종교 전통들도 하나의 동일한 신적 실재에 대한 다양한 인간의 경험과 반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성경적 주장들은 복음신앙의 근본진리를 흔들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1.로마가톨릭교회와 바티칸 2차 공의회
1962년에 로마가톨릭교회가 개최한 21차 세계공의회인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서 결정 한 것을 가운데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 (Lumen Gentium)’의 ‘비그리스도인들’ 내용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로마 천주교는 과거와 달리 이슬람교나 불교 등 모든 고등종교의 비그리스도인들도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종교다원주의적 반성경적 주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사실, 자기 탓없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알지 못하지만, 성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찾으며 양심의 명령으로 열거된 하느님의 뜻을 은총의 힘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타종교의 구원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양심구원 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代贖)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반복음적인 주장입니다. 현 프란체스코 교황도 양심을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2.WCC와 NCCCK
1) WCC(세계교회협의회)
주지하는 바,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태동된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창립 취지와 달리 회기가 거듭되면서 점점 본래의 목적에서 이탈하여, 성경적인 한계를 벗

어난 자유로운 행보를 하여 왔습니다. 십자가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일치와 연합보다는 외형적인 기구적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로마 천주교와의 연대 뿐만 아니라 타종교와의 제휴(提携)도 불사(不辭)하고 있습니다.

제10차 WCC 부산총회 이후 그 다음 해인 2014년 5월 2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로마가톨릭과의 연대를 이루어 신앙일치와 직제 일치를 위한 연합모임인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를 한국정교회도 참여한 가운데 결성하여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NCCK 연합기관 소속 회원교단은 예장 통합과 기감, 기장과 기하성 등 9개 교단이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대체 우리가 로마 가톨릭교회와 만나서 무엇을 나누고 기도하며 협력하고 배워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21차 세계공의회인 바티칸 2차공의회 문헌 ‘구원 계획안에서의 성모의 역할: 천상천하의 모후(母后)로 개전하신 마리아’, ‘복되신 동정녀와 교회’를 보면, 지금도 천상에서 계속되는 마리아의 모성(母性)은 지상에서 위험과 고통 중에 있는 신자를 돌보고 행복 한 고향으로 인도해주고, 영혼이 육신과 함께 승천하였을 뿐만 아니라 천지의 모후로서 추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성모 마리아 승천을 1950년 8월 15일 전세계에 선포한 이후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를 매년 지키는 천주교가 반성경적인 마리아 공경(숭배)을 기독교와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이것을 과연 폐기하거나, 양보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내용의 일치를 추구하려고 NCCK가 로마 가톨릭교회와 열심히 손을 잡고 가는지 강한 의구심과 염려를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2)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신학적 전통을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대화와 협력으로 일치를 모색하고, WCC와 아시아 기독교협의회, 세계 여러 나라의 교회협의회 그리고 국내의 교회연합기관은 물론 해외동포교회협의회와 지역교회협의회

와도 연대하여 서로 배우고 협력하며 함께 선교하고 있습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모두 맞는 소리 같지만 NCCK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신앙 안에서의 일치와 협력이 아닙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 복음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할 신학교 신학생들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사찰에서 새벽 예배, 108배 등 1박 2일 템플스테이로 진행합니다. 성탄절에 불교 승려가 교회 강단에 서서 축하메시지를 버젓이 합니다. 또한 성탄일에 목사들이 석가탄신을 축하하기 위해 사찰로 찾아가 축가를 부르고 불경을 손으로 필사한 병풍을 만들어 선물로 줍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가짜 뉴스이면 얼마나 다행일까요? 해마다 음력 사월 초파일 성탄일이 되면 NCCK는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축하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7년 축하 메시지(일부): “석존의 가르침에 따라 상구비로 하화중생하는 불자들의 존재가 다른 해보다 더욱 소중하고, 비움과 나눔 그리고 사감을 통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분들이 더욱 필요합니다.”

2020년 축하 메시지(일부):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시어 중생을 구제하셨던 일과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들이 다르지 않다.”

2023년 축하 메시지(일부):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생로병사와 고행을 건너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부처님의 자비가 온 누리에 평화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올해 들어와 이번 달 5월 15일에 NCCK 총무 김종생 목사는 부처님 오신 날 축하메시지를 발표하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더불어 사는 방법을 함께 깨우쳐 가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앞서서 5월 6일에 NCCK 총무를 지낸 김영주 목사(현 남북평화재단 이사장)는 평택 보곡사 사찰에 직접 가서 연등축제의 축사를 하였습니다. 인터넷(YouTube)에 올려진 실제 행사 동영상을 보시면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혼합주의로 그동안 찌들었던 NCCK의 민낯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NCCK가 과거 암울한 시기 군사정권 아래 자행된 반민중주의의 행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서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일조했지만 NCCK의 진정한 존립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한 교회연합운동입니까? 그동안 지나온 과거 행적이 십자가 복음전도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위한,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복음적인 연합운동의 행보였습니까?

NCCK는 더 이상 십자가 구원의 복음 위에서 있는 순수한 한국기독교연합단체인 교회협의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칭과 활동이 너무나 서로 상반됩니다. NCCK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약칭 NCCK)’라기보다 실제로는 원불교를 포함한 한국4대종교 협의단체인 한국종교협의회(NCKR) 명칭이 오히려 걸맞지 않을까요? NCCK는 타종교와의 공존(共存)과 화해(和解)라는 이름으로 타종교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지만 사실상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포기하고 있고,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은 최근 NCCK 회원 교단인 감리교 내에서 일어난 NCCK 탈퇴운동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3. 감리교 바로 세우기와 2024 제4차 로잔대회
1) 감리교 바로 세우기(개혁운동)
다행히 몇 년 전부터 NCCK 주류교단인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WCC와 NCCK 탈퇴안이 총회에서 계속 상정되고, 중부연회를 필두로 총청원회까지 탈퇴안이 결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감리교 내의 세속적인 정치적 교권 다툼이 아니라 한국감리교를 성경적 복음 진리 위에 바로 세우기 위한 자정(自淨)과 갱신(更新)의 개혁운동입니다.

지난달 23일부터 미국에서 두번째로 큰 교단인 미연합감리교회(UMC)가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동성애를 지지할 뿐 아니라 동성애자 목사안수도 허용하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부흥운동으로 세워진 감리교가 포스트모던시대 미쳐가는 혼란한 세상 앞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몇 년 전부터 WCC와 NCCK 탈퇴안을 총회 의제로 계속해서 제출한 한국감리교 복음적인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리교의 개혁운동이 열매를 맺도록 이번 감리교 10월 총회가 말슴과 복음신앙 위에 바로 세워지도록 기도도 협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
또한 올해 9월 2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제4차 로잔대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로잔운동이 1974년에 왜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에서 9월에 개최되는 제4차 로잔운동(한국 로잔)은 WCC와 NCCK의 지난 과거 행보와 실체를 똑바로 보고 처음 창립 때의 목적과 취지에 바로 서서 이 혼탁한 시대 본연의 자기 정체성에 따른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4.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자정과 변화
현재 한국교회에는 앞서 말씀드린 NCCK를 비롯하여 한기총, 한교연, 한교총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분립 현상이라기보다

는 난립에 가깝습니다.

각자 연합운동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유와 명분이 있고 저 역시 존중하지만은, 그것에 앞서 각자는 십자가 복음진리와 한국교회 역사 앞에서 연합운동의 당위성과 존립의 타당성이 있는지 엄중히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 보아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연합운동인가?’ 그리고 연합운동의 목표와 방향이 진정 그리스도와 복음과 한국교회 미래를 위한 것인가?’

우리는 바티칸을 중심으로 전세계 하나로 일체된 거대한 로마가톨릭교회를 바라보면서 반성경적인 부정적인 면을 봄과 동시에 이 시대 일치와 연합의 힘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먼저 자기 비움과 양보가 없는 지금과 같은 지리멸렬(支離滅裂)한 연합운동의 결과는 갈수록 한국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복음전도의 동력도 떨어뜨리며 퇴보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연합운동은 어디로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닫는 말
2022년 한국기독교한림원은 우리 시대 반성경적인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적인 주장에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이 시대 힘써 천명하고, 변증하며, 빠르게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 성경적 복음주의 신학과 신앙을 바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개최되는 제5차 학술대회는 참으로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바쁜 와중에서도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방향’이란 주제 아래 우리와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귀한 논문을 발표해주시고 논평해주신 한림원 소속 4분 교수님들과 말슴을 전해 주시고 축사를 해주신 두 분 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뒤에서 기도하시며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앞서 힘있게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이사장 조종욱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락사는 존엄사 아니다, 웰다잉이 요청된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인간이 생을 주관하겠다는 안락사는 금지되어야 한다

2년 전, 한국인 호주 교민이 스위스에서 안락사한 일이 한 책, 『스위스 안락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에 소개되었다. 그때 받은 생소하고, 충격적인 느낌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2024년 2월 네덜란드 93세의 드리스 판아흐트 전총리 부부가 동시에 안락사를 통해 생을 마감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저명인사였고, 가톨릭 신자였던 동갑내기 부부의 동반 안락사는 유럽에서도 아직 생소한 죽음 문제로서 조명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안락사를 통해서 ‘살 권리’와 ‘죽을 권리’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막 열리기 시작했다. 우리 국민 76%가 안락사 혹은 의사조력자살(Physician assisted suicide) 임박하에 찬성한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락사 논쟁은 이제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피해갈 수 없는 주제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평생 살아오던 정든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삶을 마감하였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병원에서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일반화되었다. 더 나아가 ‘죽을 권리’, ‘자율성’이라는 명목 아래 내가 생명을 조정하겠다는 안락사, 또는 조력사라는 죽음의 형태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죽음은 나의 삶의 일부로서 도피가 아닌 ‘좋은 죽음’에 대한 권리로써 안락사를 주장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1. 좋은 죽음,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생명과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삶의 질도 예전보다 나아졌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삶의 질과 인간다움의 질이 향상되었는가에 대해서 의문시되고 있

는 게 현실이다. 예전과 달리 100세까지 생명이 연장되어 살아갈 환경이 되었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죽음 자체보다도 죽어가는 과정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늘어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과 질병이 심화될 때 나타나는 고통에 대해서 우려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고통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다. 자신의 고통도 고통이거니와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을 인위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좋은 죽음’이 아닐까 생각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안락사는 회복의 가망이 없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마감게 하는 의료 행위로서 의사 조력 자살에 해당한다. 그런가 하면 존엄사는 기계장치에 의한 무의미한 생명 연장 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둘을 혼동하기도 하지만, 둘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스위스 안락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의 사례에 등장하는 안락사 주인공과 네덜란드 전 총리 부부의 죽음은 의사의 조력에 의한 안락사이다. 즉, 의사 조력 자살이다. 우리나라도 2022년 6월, 연명의료결정법의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의술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지양하고, 자연스런 죽음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안락사와 구별되는 존엄사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안락사와 존엄사를 헷갈리고 있다. 그러나 존엄사는 인간 생명의 인위적인 연장을 거부하는 것이지만, 안락사는 자신이 생을 마감하는 것이므로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2. 법제화 단계로 치달고 있는 안락사 문제는 안락사를 미화시킬 수 있다.

안락사를 논의할 때 윤리적 규범을 고수

하며 안락사를 선택하는 이들을 비난하고 외면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경직된 윤리적 도그마가 죽어가는 이들에게 비인간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죽음에 대한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세계적으로 어느새 법제화로 치달고 있다. 네덜란드는 2002년부터 ‘희망이 없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개인을 위한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지난해 7월에는 ‘완성된 삶을 위한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이 법안이 위법한 것은 무방비 상태의 환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쉽게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영국과 같은 영국 내 안락사 합법화 압력에 저항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이 향후 4년 안에 바뀔 것을 예상하는 전망이 있다. 최근 뉴스에는 프랑스의 마크롱 총리가 ‘조력 사망’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소개되었다. ‘조력 사망’은 조력 자살과 같은 의미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윤리적 관점이나 법적인 입장에서 ‘죽을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생명을 끝내는 자율성은 용인하지 않는 입장 속에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시 이런 국제적인 파고의 영향력에서 예외일 수 있을까?

3. 고통에 대해 파괴적 아니면 창조적 반응의 딜레마 속에 하나님의 편에 서야 승리한다.

죽음 권리와 자율성의 문제 이전에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가 있다. 우리는 죽음 이전에 평소 경험하는 고통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심리학적 차원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심리학과 기독교의 통합에 힘썼던 ‘인격 의학’의 선구자인 폴 투르니에(Paul

Tournier)가 언급하고 있는 고통에 대한 창조적인 태도는 ‘수용’이다. ‘수용’이라는 의미는 단순한 체념이 아니고, 고통이라는 악과 투쟁하는 것이다. 고통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의 딜레마는 파괴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창조적인 태도로 반응할 것인가이다. 그는 고난에 대한 진정한 해답은 하나님 편에 설 때이며, 이로써 고난에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고난은 물론 육신과 정신의 고통을 포함한다.

4. 우울증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걸 방해하고, 쉬운 죽음인 안락사로 이끈다.

판아흐트 네덜란드 전 총리는 2019년도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회복이 되지 않은 채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 뇌졸중은 구음장애로 인해 말하기와 보행장애로 인한 몸의 활동이 위축되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잘할 수 없는 불편한 질병이다. 이런 육체적 고통에 따른 심리적 고통이 그들에게 무기력증을 가져왔을 것이다. 동갑인 아내 역시 고통으로 남편의 문제를 감당하기에 힘들었을 것이고, 두 사람이 다 우울증을 겪었을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인위적인 죽음을 선택하고, 그들이 당면한 삶을 마감하게 되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심리학에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기력증과 우울증이다. 이러한 무기력증과 우울증은 당사자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걸 방해하고, 쉬운 죽음인 안락사로 이끈다.

5. 웰다잉은 평소의 신앙 안에서 건강한 웰빙을 바탕으로 가능하다.

그들은 가톨릭 신자였지만 우울증으로 인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에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고통’이라는 ‘악’과의 투쟁에서 져서 고통에 파괴적으로 반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우울증은 이처럼 모든 좋은

것을 삼켜버린다. 평소에는 신앙 안에서 신체와 정신, 마음 단련을 하여 건강한 웰빙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한 웰빙이 뒷받침될 때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있는 웰다잉(welldying)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루기 힘든 고통이 찾아올 때 어떤 태도로 임하여야 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폴 투르니에는 고통 안에는 고통의 크기만큼 고통을 이겨낼 에너지도 들어있다고 말한다. 스위스 정신의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칼 융(Carl G. Jung) 역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도 일컬어지는 심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면서 창조성이 함께 태어난다고 말한다.

신앙인이라도 늘 깨어있지 못하거나 찾아온 우울증을 방지하게 되면, 고통을 극복할 에너지와 창조성을 얻지 못할 수 있다. 우울증 환자들에게서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고통이 심하면 고통을 빨리 끊어내고 일컬하고자 하는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 안락사를 선택한 판아흐트 전 네덜란드 총리 부부와 호주 교민이 남긴 문제는 바로 이처럼 자신들의 삶에 희망이 없다는 점과 고통을 견딜 만한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6. 안락사의 부정적인 측면은 이기주의, 고통 도피, 인간 존엄성 상실이다.

조력사한 호주 교민의 또 다른 문제점은 배우자를 포함, 남겨진 사람들이 겪을 상실감, 거절감 등을 고려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은 채,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면이다. 안락사는 일차적으로 근대사회 이후 신앙심이 없는 가치관으로 인한 죽음에 대한 인식적 변화이다. 모든 치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생각, 치유와 성

장 둘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을 기다리는 신앙적인 태도를 잃어버린 것이 오늘날 현대인이 당면한 죽음의 문제다. 프랑스에서는 “안락사가 마치 존엄한 삶을 위한 선택인 것처럼 미화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저항”이 있으며, “고통스럽더라도 지속적인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안락사와 조력 자살이 마치 ‘현대판 고려자’처럼 악용될 가능성을 경계”한다.

또한 네덜란드의 안락사 옹호론자인 버트 키이저 박사도 “안락사는 건강하고 병약한 이들 모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문을 여는 것”이라고 반성하였다. 또한 유엔인권위원회와 마졸리 사푸란은 “안락사를 중단하고, 삶의 끝자락에 놓인 이들을 위한 고통 완화 치료를 개선하는데 자원을 사용해야”하고, “모든 이들의 고유한 생명권을 보호하고, 모든 이들의 존엄과 생명을 보호해 줄 것을 국가들에게 요구”하였다. 이런 자세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연민을 나타내주는 성서의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7. 안락사가 가지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자.

인간이 건디기 힘든 고통을 만날 때에 그것을 도피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일 수 있다. 그 도피의 방법이 고통을 완화시키는 약물을 투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현재는 의학 발달로 자신의 삶 자체를 마감하는 안락사를 선택하는 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하겠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서 만나는 고통에서도 주인이심을 깨닫고 고통의 강을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찾아야 하겠다. 고통을 피하고 싶어 안락사를 선택하게 된다면, 인간들은 생의 마지막 고통이 아니라 언제라도 자기가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고통을 만나면 안락사를 선택하려는 유혹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존엄한 것이기에, 인간 편에서 생을 지배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우리에게 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경의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2024년 5월 27일
살림을 꾸꾸는 나비행동

아신대학교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선정

아신대학교 도서관이 인문가치 확산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인 '2024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선정됐다. 이로써 아신대학교 도서관은 8년 연속으로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으며, 이는 대학도서관 중 최다 횟수 선정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주관하는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국민 생활 가까이에 있는 문화 기반시설에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인문 가치 확산을 위해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아신대학교 도서관은 '마을공동체를 위한 마음돌봄 북클럽', '사진이 말하는 우리의 이야기' 2가지 주제로 7월부터 오는 9월까지 양평지역의 성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교회법학회 제33회 학술세미나

‘인공지능(AI) 시대의 교회와 법’ 개최

(사)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재 교수)는 동아대 법학연구소(소장 김용의 특임교수)와 공동으로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서울과 부산, 전국 각지의 전문가와 목회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 시대의 교회와 법”이라는 주제로 제33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서헌재 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인 챗GPT와 불확체인 기술의 등장은 19세기 산업혁명, 20세기 정보혁명을 능가하는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한국교회도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이러한 기술과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교회에서의 전도와 교육, 성경 공부와 설교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은 유익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기술이 합당하게 사용되지 않으면 오히려 교회에 해를 끼칠 수도 있어서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교회법학회가 교회 현장에서의 인공지능의 활용과 윤리 문제를 다루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세미나를 시작으로 더 심도 있는 연구와 대응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 동아대 김용의 특임교수는 제1주제 “신기술(GA/Blockchain)과 교회”를 발표했다. 김교수는 챗GPT의 개념과 그 발전 역사를 통하여 그것이 교회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술적인 탐구를 통하여 설교와 예배의 준비, 교육 자료의 제작 및 교회 행정에 필요한 여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아직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챗GPT의 취약점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보완하며 교회 업무에 보조적인 도구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휘어진 산허리 굽이굽이

휘어진 산허리 굽이굽이 돌아서니
서산에 지는 노을 천하에 비경이라.
아, 황금 물결 찬란한 자태여
너 아쉬운 정 불잡아 둘 길 없구나.

아, 산마루 지는 황혼 청산에 쉬어 감이여
어느덧 어둠의 장단은 그 입을 열고
나그네 지친 길손을 위해 밤새소리로 시름을 달랠다.

아, 적막한 은빛 달이여 하염없는 고독을 노래하라.
마음의 장막은 추억의 창을 열었고
가나니 이별은 어두운 밤하늘 별이 되어 슬픈 동화 되었네.

인생사 고즈막한 언덕이여
아, 그림자 나그네 걸음이어라.
세상사 지친 길손 등 기대어 잠시 쉬기를 원하나
내 누울 곳 한 자 없으니 신록의 아쉬움 뒤로 하리라.

세상만사 부귀영화 우수사려 회로에락이여
열줄 비파고 고저 장단으로 북 치며 노래하자.
나 주를 너무 멀리 떠나와 어둠 골짜기 헤매었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영혼 평안해.
예수는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여,
죽음을 이기시고 내 모든 사슬 풀었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는 나의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참 소망.
아, 그 크신 자비 축막 못하리.
한 없는 은혜 형언 못 해 만유의 주님 영광 버리시고
온갖 멸시 감당하셨네.
주님 달리신 십자가 거룩한 희생이시여,
만왕의 왕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는 나의 참 소망.

인생아 너는 무엇이뇨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간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나라(약 4:14).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번 주도 대전 부자열매교회를
가족세트전도 대표 총재 박영수 목사
1시간 동안 12분 영접기도 하고
이름 성명 주소 전화번호 모두 가르쳐주고
꼭 나오기로 예비된 영혼들이 있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개척교회 전도자를 발굴하고 훈련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개척교회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
아, 무상함이며 고귀한 영혼이어라.
흠여지는 바람이여 한 줄 분토로구나.
천상천하 우주삼라만상이여,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체은 온 천지 가득하다.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후 6:2)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이 일을 도모하지 말라”(롬 13:12-14) 하셨으니

기억하자, 기록자여.
잊지 말자, 그리스도인들이여.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내자.
부활신앙으로 충만하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롬 13:10)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가족세트전도 총괄본부장
이수 교수

제1회 생명나눔 글·그림 공모전

사랑의장기기증, 공모 주제 ‘생명존중’, ‘생명나눔’, 10월 25일 시상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목사)는 오는 8월 31일까지 '제1회 생명나눔 글·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2019년 국내 최초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생명존중 및 나눔 교육인 '모든 생명은 소중한해'를 시작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교재와 온라인 교육 영상을 통하여 생명의 존엄성과 장기기증의 가치를 전해왔다.

이번 공모전은 해당 교육을 이수한 초등학생이 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본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교육 영상 및 활동지를 활용해 전국 모든 어린이가 지역과 시간 제약 없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생명존중'과 '생명나눔'으로, 내 생명과 주변의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던 경험이나 생명나눔의 가치와 장기기증의 주인공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은 '그림' 및 '글'을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공모전 참여 키트는 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참가자 선착순 1,000명에게는 수상과 상관없이 학용품 등이 기념품으로 제공된다.

임상작은 문학 및 미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선발되며 10월 25일 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2명(글·그림 각 1명), △최우수상 4명(글·그림 각 2명), △우수상 8명(글·그림 각 4명), △우수 단체상 2개(글·그림 각 1개 단체)의 수상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각 상패와 이에 따른 부상이 수여되고, 향후 시상식과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수상작이 공개된다.

본부 박진탁 이사장은 “생명존중 및 나눔 교육에 이어 이번 생명나눔 글·그림 공모전은 어린이들의 생명나눔 감수성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미래세대인 초등학생들의 빛나는 잠재력으로 장기기증 문화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작품을 출품해 달라.”고 전했다.



고운세상코스메틱, 2억 6,000만원 상당 기부

초록우산에 닥터지 제품 기부, 아이리더를 위해 쓰인다

이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과 스킨케어 전문기업 고운세상코스메틱은 지난 5월 29일(수) 기부식을 가졌다. 초록우산은 고운세상코스메틱이 기부한 약 2억6,000만원 상당의 닥터지 화장품 5종을 초록우산 아이리더 1,2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 스킨케어 전문기업인 고운세상코스메틱은 2019년부터 초록우산과 함께 환아 의료비, 자립준

비청년 지원 등에 나서는 등 사회공헌에도 적극 나선데 이어 이번 초록우산 아이리더를 위한 물품 기부도 진행했다.

초록우산 아이리더는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잠재력을 키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재양성 사업으로, 2009년 이래 약 1,500명을 지원했다. 올해도 약 1,300명의 아동이 초록우산 아이리더 사업을 통해 꿈을 키워가고 있다.

고운세상코스메틱 이주호 대표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아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이번 기부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당당하게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여러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아이들의 꿈을 향한 여정에 큰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고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길을 발맞춰 걸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70인 천년초식품

천년초의 효능

1)폐활성물질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취실현)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냄)

2)플라보노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탁시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갑상선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있음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나.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믿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석교회

인생의 성공



미국의 기독교 실업인으로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아서 미다스(Arthur Midas) 장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때 미국의 10대 재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다스 장로는 본국의 학생선교단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생 선교단체에도 50만 달러를 기증했습니다.

또한 7억 달러 이상을 선교단체를 위하여 헌납했습니다. 그리고 힘써서 불행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언론사의 한 기자로부터 신앙과 인생성공 비결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게는 아주 간단한 다섯 가지 인생철학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철저히 지켰습니다.

둘째는 온전한 십일조입니다.

셋째는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예수님을 내 집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선행은 행복한 삶의 열쇠입니다. 이기적인 부자에게 '풍요'는 있어도 '참된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짚은 지어도 행복은 사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선한 일에 힘쓸 때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성공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잠 19:17)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넝쿨 장미 아래서

순백의 울타리 위로

넝쿨진 장미들이 보인다.

삼삼오오 짝을 지는 풍성한 모습이 예술이다.

초록 옷에 붉은 장미 한 아름 가슴에 달고 있다.

점점 세계... 점점 여러게...

은은하게... 강렬하게...

넝쿨 장미들의 합창이 시작되고 있다.

보는 이의 정신을 사로잡는 이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



어느 길가 하얀 나무 울타리 위로

탐스런 넝쿨장미와 그 밑에 수북이 떨어진

장미 꽃잎이 사람들에 밟혀 핏빛 길이 되어있다.

그 길 위를 지날 때 주신 마음을 적다.

마음은 녹아져 꽃길 위에 흐르고

꽃잎이 떨어져 짓밟힌 그 길 위를...

핏빛으로 물들여진 그 길 위를... 내가 걸어간다.

그 길을 걷는데 나는 왜... 눈시울이 젖을까?

그 길을 걷는데 나는 왜... 목숨 바쳐 생명 구한

예수님 사랑 이야기가 생각나는 걸까?

진한 핏빛 꽃길 위에서 그들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한다.

사설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을 시행하는 나라다. 행정, 입법, 사법부가 정확하게 하는 일이 다르다는 뜻이다. 어느 한쪽으로 일방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여 권력의 균형을 이루기 위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 이유를 정진석 비서실장이 설명했다.

이번 특검이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점을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들었다. 특검이란 수사 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가 특검이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경복경찰청과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국민들이 잘 알다시피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의 민주당이 일방 설치한 것이다.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데 특검을 하자는 것은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이 되는 일이다.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을 입법부에 넘기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다.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쳐 도입된 특검은 모두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했고, 이번처럼 야당이 일방 처리하거나 정부가 동의하지 않은 특검법은 없었다. 게다가 이번 특검법은 여러 문제가 많은 것으로 논란이 많다. 특검 후보자 추천을 야당에만 부여했고,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그 가운데 2명을 민주당이 추리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한 것이다.

여당이 배제되어 사실상 민주당이 대통령이 행사할 임명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이다. 이는 피의 사실 공표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거부권 행사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국회 권력에 대응하는 방법이다. 대통령의 유일한 국회 견제 수단이란 뜻이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거부권을 지금까지 11번을 행사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한국처럼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 사유라고 하지 않았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사유라는 말은 헌법에도 없는 말인데 자기를 맘대로 쓰고 있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거부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도 탄핵 사유라고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만일 우리나라가 내각제라면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제에서는 거부권이

국회 권력을 견제하는 유일 수단이라서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제도다.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사유(민주당의 김용민 의원)라고?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도 모르는가. 왜 이런 막무가내식 특검을 요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 사유라고 주장할까? 몰라서가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서에서 하나만 걸려도 차기 대선에 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많은 사법 리스크에서 하나도 걸리지 않을 확률은 없다.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 지금처럼 말도 안되고 법에도 맞지 않는 특검을 요구하고, 특검을 거부할 것이 뻔하니까 그걸 빌미 삼아서 막무가내로 탄핵을 주장하고, 탄핵 처리한 후에는 조기 대선으로 가자는 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전략이다.

꼼수도 이런 꼼수가 없다. 저들에게는 박근혜 탄핵이라는 학습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뭘까? 과연 민주당의 전략대로 억지로라도 모조리 특검을 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규모 집회를 열고, 탄핵을 하고, 탄핵 후에는 조기 대선으로 간다. 범법자 한 사람을 위해 국회가 막무가내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되어도 최종 판결은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사정은 박근혜 당시와는 아주 달라졌다. 헛물만 끓 확률이 지극히 높다. 1만 5000명이 민주당에서 탈당 신청을 했다.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150만 명이니 그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지 모르나 지지율은 6% 이상이 떨어지고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더 높다. 진짜 특검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 탄핵 여론을 지피기 위한 정치 공세라는 것을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금방 간파할 수 있는 일이다.

미국에서는 단 한 차례도 탄핵이 없었다. 현재 민주당은 탄핵병에 걸렸다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탄핵이란 대통령이 악명 높게, 혹은 위험하게 권력을 남용했을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책에서는 말한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헌법에 보장된 국회 권력의 유일한 견제 수단이기 때문이다. 특검, 탄핵, 조기 대선?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까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마 7:1-5)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관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성명서

복음주의 신앙과 신학에 기초하여 한국교회의 건실한 발전을 도모하고 기독교적 가치의 실현을 통해 한국교회와 사회를 계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설립된 ‘한국기독교한림원’(韓國基督教翰林院, KCA)은 최근 한국교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신진화론’에 대해 아래와 같이 표명합니다.

- 아래 -

- 1 유신진화론은 성경적 창조론을 부정하고,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이론으로서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교리에 반하는 주장이라는 점에서 유신진화론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 2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에 반하는 ‘유신진화론’ 주장을 학문의 자유 혹은 교권침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깊이 우려합니다.

길원평 박사(한동대 석좌교수, 바른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대표)
김선배 박사(침신대 전 총장, 전 전국신학대학협의회 회장)
목창균 박사(서울신대 명예교수, 전 서울신대 총장)
박명수 박사(서울신대 명예교수, 전 한국교회사학회 회장)
박응규 박사(아신대 명예교수, 개혁신학회 전 회장)
서정숙 박사(강릉영동대 명예교수, 한국신학회 이사)
안명준 박사(성서대 초빙교수, 전 한국장로교신학회 회장)
임성택 박사(전 강서대 총장, 미래세대청년연합교회 대표)
이광희 박사(평택대 명예교수, 전 개혁신학회 회장)
이동주 박사(전 아신대 교수, 바이어하우스학회 회장)

3 정통 복음주의 신학과 신앙고백에 기초하여 설립된 신학교육기관의 교육 및 교과과정은 학원 설립 목적에 준하여 학문의 자유로운 토론을 인정하되, 각 교단과 신학교육기관이 지향하는 신학 입장과 신학교육 정책을 존중합니다.

4 오늘의 한국교회 일각의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세속적 인본주의 등 반복음적인 사상을 배격하며, 성경적 복음주의에 기초하여 종교, 사회, 교육, 문화 등 제반 분야의 연구를 통해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며 한국교회의 건실한 발전과 부흥을 위해 진력하는 한 국교회와 교단 그리고 신학교육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5월 29일

한국기독교한림원 이사장 조용목 목사 · 원장 정상운 박사

이상규 박사(백석대 석좌교수, 전 개혁신학회 회장)
이승구 박사(합동신학대학원 명예교수, 전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회장)
이억주 박사(전 칼빈대교수,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이은선 박사(안양대 명예교수, 한국장로교신학회 회장)
오덕교 박사(헛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 총장, 전 한국장로교신학회 회장)
정상운 박사(성결대 명예총장, 대학총장포럼 회장, 한국기독교한림원 원장)
최대해 박사(대신대 총장, 한국신학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황덕형 박사(서울신대 총장, 한국기독교학회 회장)
하주현 박사(경희대 의대 교수, 한국창조과학회 회장)

가나다순 한림원 정회원 교수 명단(직함)